

우리 학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지향해야 하는가?

How should our Institute develop and what role should we aim for?



권성준 Seung-Jun Kwon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우리 학회 부회장
E-mail : jjuni98@hannam.ac.kr

대학원 박사과정때, 지도교수님이 오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발기인으로 참석했던 학회가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인 줄을 한참 뒤에 알았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원분들과 이사님, 부회장님은 타학회에서도 종종 뵙는 분들이며 많은 일들로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프로젝트의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나또한 10여년 전부터 위원, 총무이사, 논문집 위원장, 부회장 등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보다 미안함이 많은 학회이다. 부회장이어서 인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논단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차에 생각해오던 것을 몇 자 적어본다. 순환골재쪽 지식이 많지도 않은지라, 아래의 내용들은 회원분들이 모두 아시는 내용이다.

○ 우리학회는 타학회에 비하여 장점이 아주 많고 발전할 여지와 적용분야가 너무 많다.

학회규모가 비교적 작다보니, 좋은 의견은 바로 결정이 되고 추진력 있는 한 두 분의 의사가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한다. 학연-지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학회에 비해서는 소리소문이 덜 한편이고, 위원간, 타학회간 알력도 크지 않다. 물론 세대간에 생기는 아쉬움과 계속 바뀌는 환경부 정책 탓에 지속적인 연계성을 유지 못하는 아쉬움은 어쩔수 없다.

○ 우리 학회에 오는 젊은 위원은 얼마나 될까?

나도 그렇고 회원분들 모두 예전보다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 학회활동을 위해 시간을 만들기가 녹녹치 않아진다. 또한 학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회원 수가 적은 소형학회는 꼭 죄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참여하는 젊은 (나도 젊다고 생각하지만) 회원들은 예전과 달리 활동의 제약이 너무 많고 하는 일의 스펙트럼도 너무 넓어져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 또한 젊은 참여자의 인식 역시 예전처럼 학회일에 밤을 새면서 하기도 어렵고, 선배로서 이를 부탁하기도 어



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결국 친한 선후배의 의존도가 커지고 몇몇의 소수 학교 위주로 학회 일이 진행된다.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젊은 친구들에게 학술대회 참여를 부탁하고 논문 제출을 부탁해도 그들의 시선은 승진, 회사 및 학교 관련 공무, 수업과 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전력을 다하는 다른 학회가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며, 참여해서 정족수만 메꾸어도 감사한 일이다. 나 역시도 타학회 학술대회를 맡고 있다 보니 우리학회 분들에게 논문투고요청을 안하는 것으로 자위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심해질 것이라서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역할을 하고 참여하려는 젊은 분들을 잘 찾아내고 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마음이어도 좋고 덕담이라도 좋다.

○ 왜 우리학회는 재정이 크게 모이지 않을까?

전임 회장님 분들과 임원진, 그리고 회원분들의 노고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으며, 대개 학회의 재정이 크게 늘어가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큰 성과이며, 노력하시는 임원진에게 큰 감사를 늘 드린다. 대형 학회의 경우, 년초에 회원관리에 따라 지원이 일정부분 정립되어 있지만, 중소형 학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큰 이벤트를 수입 사업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벤트로는 기술강좌, 도서판매, 논문 DB, 인증사업 등이 있으며 그중 학술대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각 회원사의 도움과 운영진이 발로 뛰며 견어들이는 수고가 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회 회원이 3,000명 수준이 되고 책임회원이 1,000명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벤트 수익사업의 의존이 낮아진다. 또한 관련 협회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은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학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학회는 다른 전문학회처럼 토목과 건축분야가 번갈아가면서 회장직 봉사를 하는데, 후원기업들의 연속적 지원과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운영진의 노력에 따라 결실들이 나오고 있다.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와의 중장기적인 밑그림은 학회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우리 학회 규모의 타학회에서 관련 기관 및 협회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학회의 그림을 그리는 데 참고할만하다.

○ 왜 우리학회는 회원수는 늘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똑같은가?

우리 학회는 환경부 소속의 학회이다. 그리고 한국콘크리트 학회나 건축시공학회 등 건설재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산학연 회원분들이 참여하신다. 건설재료의 영역을 넓히고 그 영역의 분들이 유입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적확대, 연구영역의 확대, 관련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말을 써놓고 나서도 참 어려운 일이며,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방향은 옳다.

조금씩 순환자원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논문집, 학술대회, 기술강좌 등에 이러한 방향이 고려되면 좋을 듯 하다. 물론 관련 정책제언에 따른 R&D 사업도 필수적이다. 우리 학회의 주된 관심영역인 산업부산물과 순환골재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과 폐유리, 지오폐리머 등은 미래의 좋은 협업 영역이다.

○ 왜 우리 학회는 학회 자체의 사회적 수요가 적을까?

우리 학회의 영역을 곰곰이 생각하면, 콘크리트 학회 중 순환자원관련 분야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일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급한 일들이 아니라, 관련 부처의 수요가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수요가 있다해도 임기 이내에 반짝이는 성과를 내기는 참으로 어렵다.

정책기반의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 학회와 관련된 일들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많다. 또한 환경부에서 주로 다루지는 안전들이 물산업과 환경영향산업이라서 우리 학회 관심사인 건설부산물과 순환자원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우리 학회는 회사와 같은 이익 집단이 아니므로 그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현재 공학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을 관련 협회 및 연구원 등과 함께 수요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 작은 R&D로부터 시작해도 되고 정책제언이나, 관련기관 및 기술의 홍보도 좋다. 적절한 수요의 창출과 환경부와 사용자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 학회만큼 좋은 기관은 없다. 관련 수요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학회를 홍보해서 거쳐가도록 힘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한다.

○ 우리 학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중요하고 어떤 일들이 급한 것일까?

개인적으로 수년전에 과충에서 못한 학회들을 모아 학술논문후보지를 등재지로 승격시켜준 일이 참 고마운 일이었다.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한번에 해결되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학회도 20년이 되었으니,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Solid 한 로드맵을 구축할 시점이다.

논문집의 발전방향, 학술대회의 양적/질적인 확대, 정책제언과 이를 반영한 R&D 계획,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 미래 산업사회 NEEDS에 따른 기술의 방향제시, 줄어드는 젊은 학

회의 확보 등 중요하고 급한 일이 많다. 10년 동안 해야될 일과, 2년 임기내에 할 일, 그리고 건축-토목이 이어지면서 4년 임기내에 할 일등의 구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좋은 로드맵의 구상과 현실적인 발전계획, 그리고 꾸준히 이어할 수 있는 원동력을 기록할 시점이다.

다 아는 이야기를 쓰다보니 학회에 대한 아쉬움과 닢두리가 되어버렸다. 우리 학회분들의 친절과 일하는 열성은 내가 아는 어떤 학회에 비해도 낮지 않다. 또한 역대 학회장과 임원진들을 보면 존경하던 선배님들과 동료분들이시다. 또 참여하시는 이사분들과 위원분은 어떤가. 타학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후배분들이시다. 특히 현재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KCL 역량의 많은 부분을 우리 학회와 함께 해주시는 회장님께 송구함과 고마움을 느낀다.

20년 동안 우리 학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것들에 더없이 큰 박수를 보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담당 편집위원 : 정연웅(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우리학회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설정

젊은 학회 구성원의 참여 독려

- 전공분야 위원회 참여 및 관련 R&D 지원
- 회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정방향 정립

- 재원 투입 유효성 평가
- 적극적 투자 및 운용

학회의 내적 중점사업 설정

- 국문 논문집 (우수논문집 또는 SCOPUS) 지향
- 학술대회 (과충 지원금 수준 향상)
- 기술인증 사업 확대
- NEEDS 해결형 기술강좌
- 회원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학회지

순환자원 학회 특유의 연구 위원회 통합화

- 트렌드에 맞는 연구성과 홍보
- 학회 특성에 맞는 위원회 구축 및 관련 사업

학회의 내적 성장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구상

유관기관의 확대

- 수요의 창출 및 공감대 형성
- 관련 기준 참여 학회 구상
- 단체 표준 등 협업사업 구축
- 관련 R&D 사업 추진

참여 회원 및 영역 확대

- 페플라스틱, 페유리 등의 유망 수요 회원사 발굴
- 애로기술 해결형 접근
- 관련 회사 및 연구소의 회원사 확대

산업부산물 등에 대한 집중 사업 구축

- 순환골재관련 관련 Unique 학회로서의 네트워크 확보
- 산업부산물에 대한 기술력 및 네트워크 구축
- 관련 인증 및 법규 관련 학회로 발전

환경부 관련 NEEDS 도출

-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도출
- 관련 기술 및 기관의 홍보
- 중장기 대응 정책의 제언
- 관련 사업의 대응 및 중점사업 도출

학회의 외적 성장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구상